

로스쿨 면접후기

김 중 훈

- 중앙대 영화학과 졸업
- 현재 중앙대 로스쿨 2기생

LEET 이후, 성적발표 전

아마도 이 기간이 수험생들이 가장 곤란해 할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없으니 자신이 지원할 로스쿨을 확정하기 힘들고, 어떠한 준비부터 해야할 지 우선순위가 잘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LEET라는 시험은 수학능력시험처럼 입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LEET 못지않게 다른 요소들이 입시의 결과를 좌지우지합니다. 설령 LEET를 못 봤다고 느껴져도 너무 상심 말고 침착히 다른 요소들에 힘을 쏟으실 때입니다.

이 시기에 면접 준비에 완전히 집중하기는 어려우므로 어학이나 봉사활동 등 면접 이외의 부분에 보다 신경쓰는 것이 더 현명하리라 판단됩니다. 단, 자기소개서 초안은 꼭 작성해두시길 바랍니다. 성적이 발표된 후로는 면접 준비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소개서가 소홀해지기 쉬운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기준으로 면접을 진행하므로 이 시기에 자신을 돋보이게 할 부분이나 자신의 법학에 대한 신념과 철학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자체의 완성도보다도, 인성면접에서 자신의 페이스로 질문과 답변을 물고 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말 그대로 '편집'해두시길 바랍니다. 소신지원을 하고 싶은 로스쿨이 있다면 미리 그 양식에 맞춰 써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경우, 이 시기에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며 앞서 언급한 자기소개서 초안을 잡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실전처럼 면접 시뮬레이션을 하며 면접의 기술을 쌓는 것보다 지식을 쌓을 때라 생각되어 신문과 책을 주로 읽으며 사회적인 이슈를 파악하고 입장과 논거를 정리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저는 비법학사 출신인데다 법학과는 인연을 딱히 맺어본 적이 없어 법에 대한 소양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볍게 법 일반에 대한 교양서를 보며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로스쿨에 들어온 다음에 느끼는 것이지만 법학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상당히 유리한 지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법학이 단기간에 공부해볼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학문이 아니므로 기본 베이스가 없다면 욕심내지 마시고 차라리 상식이나 사회과학 지식 습득에 매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인 준비

성적이 발표되고, 각 로스쿨의 지원도 시작되며 마음이 다시 심란해지는 시간입니다. 스터디나 학원 강의도 본격적으로 열을 띄기 시작할 테지만, 1차 발표가 나면 주변에서 떨어지는 수험생들도 있고 자신보다 나아보이는 경쟁자들도 보일 테고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일하랴 면접 준비하랴 몸고생 및 마음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수기에서 볼 수 있듯이 면접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 LEET 10~20점 보다는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LEET 점수도 높지 않고, 어학 점수도 높지 않고, 학점도 그리저럭, 그렇다고 사회생활을 하다 온 것도 아닌데 나이는 제법 되고... 말하자면 모든 게 고만고만하거나 간당간당한 상태였기에 면접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야만 했습니다.

고심 끝에 가군과 나군에 지원을 마친 후, 바로 면접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제 경우 한곳은 집단면접을 보아서 직접 스터디를 조직했고, 다른 한 곳은 기존에 갖춰진 스터디에 들어가 심층면접만 준비했습니다. 여러 학원에서 실제 시험과 비슷하게 면접연습을 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있어 내심 수강해보고 싶기는 하였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그리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한 논설위원이 하는 강의를 통해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이슈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는데 도움이 제법 되었습니다.

스터디는 초반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여러 이슈를 정해 논의하며 각자의 입장과 논거를 보충해가는 형식으로 진행하다가, 중반부부터는 시간을 정하고 이슈를 제한하며 보다 타이트하게 모의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인성면접까지 스터디를

통해 준비하지는 않았습디만, 숫기가 많으신 분들은 인성면접도 모의로 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만 앞서고 말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 번 면접 연습을 하다보면 많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 주변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보통 두 개씩은 스테디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더 보태자면, 집단면접이 자신이 지원할 곳에 없더라도 집단면접 스테디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보다 논의가 날카로워지고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심층면접만 있는 로스쿨을 지원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느껴집니다.

실제면접 01 - 가군

가군 면접은 금요일 오전으로 제가 지원한 학교에서 가장 처음이었기에 먼저 보신 분들의 후기를 참고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최대한 단정한 차림으로 갔고, 면접 전에 많은 것을 볼 여유는 없으므로 미리 준비해둔 메모 정도만 가져갔습니다. 한 조당 10명씩 70분에 거쳐 보는 토론식 면접이 먼저 있고, 그 후 한 사람당 대략 15분에서 20분가량 교수님들에게 면접을 받는 전형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함께 면접을 볼 분들과 기다리고 있자니 많이 긴장이 되더군요. 예정되었던 시간이 되자 조별로 이동하여 자리 추첨을 하고 면접이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자리는 번호로 배정되는데 제가 짚은 번호는 마지막순서인 10번이었습니다. 사각의 테이블 한편에 교수님 세 분이 심사를 하시고,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대로 앉아서 가장 처음에는 순서대로 발언을 하고, 이후에는 자유롭게 순서와 관계없이 발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면접이 시작되면 문제가 서면으로 주어지고 20분간 발표 준비 할 시간을 가진 뒤 50분 동안 토론시간이 주어지는데 한 번의 발언 시 3분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발언기회는 총 세 번이 주어집니다. 준비시간에 쓴 메모를 참고할 수 있고, 면접 진행 중에 필기하는 것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문제는 세 쪽 분량으로 근대에서부터 현대까지 국제평화를 위해 시도되었던 세계의 정책들이 소개되고 그것이 실패하기까지의 과정이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담보상태에 있는 국제평화 정책의 현실을 설명하며,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취해야할 태도와 정책을 대하여 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문제였기에 당황했지만 어떻게든 답을 해야만 했기에 열심히 머리를 굴려 입장을 정리해 2/3정도 요약을 하고 있는데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집단면접에서는 확실히 순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처음 발언

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떨리고 생각이 채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마지막에 발언하는 사람은 먼저 발언하는 분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고 이미 얘기가 나올 만큼 나왔으므로 참신한 인상을 주기 힘들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앞에서 달변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눅도 들었고 저와 같은 답변을 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며 간을 줄였습니다. 당시 저희 조에서는 주로 두 가지로 입장이 정리되었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국제기구를 창설하거나 기존의 국제기구에 보다 힘을 집중하여 국제평화를 유지시키는 업무를 담당시키고자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NGO나 언론단체 등 제3의 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강대국이나 테러집단 등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감시해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위의 두 입장과 달리 국가 간의 시장교류 및 정책교류를 보다 활발히 하여 각국의 이해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으로써 전쟁이나 테러 등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자국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끼치게 만드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면접을 보는 분들과 겹치지 않는 주장이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같은 편이 없어 여러 반대 논변에 답을 해야 했기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특히 그 중 한 분이 법학 및 정치학에 해박하신지 헌법 및 관계법령들의 조문과, 제가 모르는 많은 외국의 정책과 사례를 논거로 들며 반박하셔서 무척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일관된 자세로 나갔던 것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흔히 알고 계실 토론의 기본 상식 외에 주의하여야 할 점 두 가지는 발언 시간과 발언 타이밍입니다. 발언시간은 주어진 시간보다 약간 긴 것보다는 차라리 약간 짧은 것이 좋습니다. 발언을 마칠 즈음에 이를 종을 울려 알려주는데 시간은 없고 할 말이 많으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수험생들은 유명 패널도 아닌 관계로 지정시간이 끝나면 가차 없이 발언기회를 앗아갑니다. 이때 발언을 마치지 못하면 서·본·결이 완성되지 못함은 물론 주장하고자 했던 것이 왜곡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시간에 맞춰 발언하고 필요한 것만 추려 말씀하시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주장하시는 바에 많은 반박이 있을 텐데 모두 상대할 필요가 없으니 그중에 자신의 논거를 흔들 만큼 예리한 반박만 골라내는 훈련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토론의 흐름상 어느 시점에 끼어들어야 할 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단면접은 사실상 다른 수험생들과 하는 기(氣) 싸움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논의의 흐름을 바꾼다든가 분위기 편승하는 것 역시 전술의 일환이 됩니다. 특히 최후 발언 시에는 모든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입장을 정리하

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미리 발언하여 논의를 종결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요령을 부리는 것은 본능적인 감각이 없고서는 임기응변으로 힘들기에, 함께 준비하시는 분들과 시간을 정해 반드시 연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 외 특기할만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함께 면접을 보던 분 중 한 분이 자청하여 사회를 보며 토론을 진행하셨는데, 숙단할 수는 없으나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닌 듯합니다. 웬만한 연륜으로는 손석회 아나운서처럼 진행하기는 어려우니, 무리수는 두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큰 탈 없이 잘 진행하셨던 것 같습니다만, 집단면접의 평가대상으로는 어떠했는지 수이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이후 심층면접에서는 한명씩 들어가 집단면접 때 계셨던 교수님 세 분께 돌발 질문을 받습니다. 작년과 제작년 워낙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이 다뤄진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현 정권의 정치방식에 대한 평가와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FTA 체결 및 그에 앞서 있었던 스크린쿼터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오가게 되므로 자신이 무엇을 적었는지, 예상 질문에 어떤 답을 하고자 했는지 꼭 면접 전에 상기해두시길 바랍니다.

실제면접 02 - 나군

나군은 가군에서 집단면접 및 심층면접까지 치룬 터라 훨씬 여유가 있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더 많았으므로 보다 많은 이슈들에 훈련이 되어있었고, 결국 받아들였던 문제도 그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나군에 지원한 학교는 심층면접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가장 마지막 날 마지막 조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A4 1장 분량의 지문 두 개가 주어지는데 그 중 하나를 선택해 각 지문에 있는 하부 문제 4~5개에 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준비시간이 10분가량 짧게 주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보자마자 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두 지문 모두 정독을 하게 되면 하나도 제대로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추가질문이 반드시 있으니 빠른 선택을 하여 여분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접 중에는 필기를 할 수 없고 메모만 참고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 경우 첫 번째는 흡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내부고발자가 관련된 사건에서 행정기관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였는데, 저는 흡연자였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에는 진심으로 대답할 수 없

을 것 같아 주저 없이 두 번째 질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순서가 되면 교수님 세 분이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교수님과 대담하는 식입니다. 지문에도 문제가 있지만 꼭 그대로 질문하지는 않고 문제를 건너뛴다든지 문제를 즉석에서 변형하시든지 전혀 새로운 질문들도 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질문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입장이 조금만 바뀌면 기존의 논리가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같은 이슈에 대해 여러 입장에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집단면접 스테디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내부고발자라는 이슈는 많이 접했었고 추가질문도 예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후보자 분들보다 다소 길게 면접을 한 것 같은데, 20분가량 문제에 관련된 답을 하고 15분 정도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가군 면접에서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기에 나군에서는 보다 준비를 철저히 하여 무리 없이 잘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로스쿨에 들어와 다시 돌이켜보아도 면접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LEET 고득점자도 추가합격으로 불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심심찮게 생깁니다. 또 문답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물론 면접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요령 이전에 그 바탕에 지식을 쌓고 정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누차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은 이전까지의 결과들에 대한 미련은 이제 잠시 접어두고 면접 준비에 매진하십시오. 건승하시길 바라며 목표하시는 바에 제 글이 작은 보탬이 되길 희망합니다.